

# 분과별 심포지엄 참관기

The Sectional Report of the 39th Korea-Japan Professional Engineer Symposium

## 여성위원회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기술분야 발전을 위한  
여성 기술사의 역할



글 | 李芝衡  
(Lee, Ji Hyung)

수질관리기술사  
(주)한가람 환경사업부 이사

E-mail : jhyung@pusan.ac.kr



▲ 한·일 여성기술사 단체사진

2009년 10월 7일 인천 하얏트리젼시호텔에서 이루어진 제3회 한·일여성기술사 심포지엄은 제39회 한일기술사심포지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여성 기술사들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기술분야 발전을 위한 여성기술사의 역할」이라는 토의주제를 갖고 10월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측 이효숙 회장님의 인사로 시작한 세미나는 참석한 양국 기술사들의 소개와 인사하는 시간이 먼저 있었다. 일본측 참석자 소개는 Yuki Hirose의 진행으로, 한국측 참석자는 필자의 소개로 진행되었는데 일본측은 Iwakuma Maki 회장님을 포함하여 9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의 분야도 상하수도, 건설, 환경, 정보공학, 응용이학, 수산, 전원경관계획 등 다양하였다. 한국측도 역시 비철야금, 건축전기, 토목시공, 건축시공, 환경(수질), 의류 등 다양하게 10명이 참석하였다. 양국 모두 올해 처음으로 참석하는 기술사님들이 있어서 교류의 폭이 점점 넓어졌고, 여성기술사의 주제발표가 각각 1편씩 진행되었다.

일본측의 주제발표는 이시다 요시코 기술사의 「일본여성기술사회 NPO 사회활동 - 여학생들에게 과학기술분야와 기술사제도 소개, 여성과학기술인 국제 구축과 교류」라는 발표로 이루어졌는데 일본 여성기술사들의 2007년 결성된 NPO(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지난 1년간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2007년 결성된 NPO의 활동은 아이들에게 과학기술에 친숙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제공, 여학생들에게 이공계 과학자나 공학자가 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 과학기술분야에 성평등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 해외여성기술사와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의견교환과 국제협력 부분에 다양한 활동이 있었다고 한다. 그 대표적 사례로 기술사 salon을 3회 열어 간단한 다과회를 가지면서 여학생들에게 JABEE(일본기술자 교육인정기구) 코스에 대한 소개와 질의 응답을 통한 이해를 돕고 장래의 업무와 직장상사와의 조화에 대한 이해증진, 일본 기술사제도에 대한 소개 등을 하였다. 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살고 있는

곳을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도시만들기와 비슷한 도시계획분야 심포지엄을 열었다. 그 외 국제교류분야에서 ICWES 14, 한일여성기술사회, 2009. 8월 부산에서 개최된 BIEN 2009 등에 참가하여 아시아 여성과학기술인 협력과 교류를 가졌으며 2009년 10월 말 일본, 한국, 중국 여성과학기술인 교류를 계획 중에 있다고 하였다.

또 지역별 여성기술사 분포와 자녀에게 바라는 보호자의 장래희망직업군, 전공분야별 성별 학생수의 추이(학부, 대학원)등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서 이공계 여학생의 비율을 보면서 향후 당면한 활동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한국측 발표는 기유경(건축전기설비) 기술사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제목으로 발표가 한 시간 정도 있었다.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의 '불편한 진실' 동영상으로 시작하여 영화 'Tomorrow'와 올 여름 한반도를 강타했던 영화 '해운대'를 통한 기후변화의 실상가상적 심각한 모습들을 보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 왜 저탄소녹색성장이어야 하는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온실효과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과 토의가 있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 현상들을 화면으로 재구성해서 보면서 그 대안으로 태양력, 풍력,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기술, smart grid의 원리와 소개가 있었다.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녹색기술로 절전형 No carbon LED lamp, Hybrid car, Tomas Edison과 Henry Ford의 전기자동차개발에 얽힌 에피소드 소개, 교토의정서와 각국 미국 오바마 대통령, 한국 이명박대통령, 일본 하토야마 수상등 세계정상과 EU의 CO<sub>2</sub> 감축목표와 녹색기술에 대한 천명된 의지에 이에 대한 기술적 당면문제 등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양국 발표가 마친 뒤 발표내용에 대해 질의 토론의 시간이 있었는데 비영리기관인 NPO의 재정적 운영방법에서부터 일본에 여성과학기술단체가 어느 정도 되는 지, 전기 사용시 전압의 실태와 송압계획,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홈에 대한 기술적 질의, 한국의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의 상업적 네트워크 구축 상황, 한국의 어린이 환경교육은 어느 정도인지 등 정책적, 기술적 다방면의 질의 토론이 있었다.

토론 중간에 한국기술사 이정만회장님과 일본 기술사 다카하시 오사무 회장님과 양국의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인사말씀과 한국, 일본 여성기술사 비율이 높아지기를 바라며 이 교류회가 오랫동안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하시고 가셨다.

양국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한일여성기술사들의 세미나를 모두 마치고 안영례(의류)기술사님을 강사로 한일 여성기술사들이 다같이 1시간 동안 예쁜 보랏빛 코스지를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준비해온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누가 더 예쁘게 만드는 지 비교도 하면서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진지함으로 정성을 집중하며 작품을 만들어 나갔다. 앞으로 한일 여성기술사들은 공동의 프로젝트도 함께 기획해서 추진하여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는 커다란 가능성과 희망을 보게된 것이었다. 일본 여성기술사들도 간단한 선물과 함께 작년 제2회 니가타 심포지엄에서 세미나와 친목의 시간에 함께 했던 사진을 CD로 만들어와 나눠주었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반갑고 두터워지는 한국과 일본의 여성기술사들의 친분과 교류를 위해 저녁식사장소로 자리를 옮기는 발걸음엔 이미 내년을 기대로 가슴이 한껏 부풀어 올랐다.

〈원고접수일 2009년 11월 23일〉